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1990년~2010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Korea: centering around the Trend of Changes in 1990-2010

김형수, 권이경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Hyoung-Soo Kim(kimhs@hoseo.edu), Lee-Kyung Kwon(lkkwon1966@yahoo.co.kr)

요약

본 연구는 노인자살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노인자살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노인자살률의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을 포함하며, 사회적 요인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로는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그리고 고령화비 증가율과 노인부양비를 포함한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지출비가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빈곤율, 고령화비 증가율, 그리고 노인부양비는 공히 이들이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한국노인자살률의 지속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노인자살률 | 사회·경제적 요인 | 정책방안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factors from the macroscopic perspectives. As certain theoretical background of elderly suicide, sociolog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are applied. The economic factors of elderly suicide rates consisted of 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rate, economic activity rate of the aged, and relative poverty rate (income inequality rate). The sociological factors included social welfare spending, divorce rate, growth rate of population aging, and elderly dependency ratio. According to research findings, first, the more economic activity of the aged is low, the more elderly suicide rate is high. Second, the more social welfare spending rate goes flat, the more elderly suicide rate is growing. Third, the more relative poverty rate (income inequality), increasing population aging rate, and elderly dependency ratio are high, elderly suicide rate goes high at the same time. Finally, this study proposed several socio-economic policy alternatives for preventing continuous growth of Korean elderly suicide rate.

■ keyword : | Elderly Suicide Rates | Socio-economic Factors | Policy Alternatives |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더불어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 및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고령화가 보다 장기에 걸쳐 진행되어 점진적 적응과 대비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압축적인 시간 틀에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18]. 인구고령화로 인한 이러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노인들이 경험하고 적응해야 하는 변화의 규모가 너무 크며 그 내용 또한 다양하다. 고령화 사회에 걸 맞는 경제사회적 기반 및 제도가 열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사회의 불안정한 상황들이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노인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고령노인의 자살률의 증가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2004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23]. 그러므로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자살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의 모색은 우리사회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노인자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으며 노인자살의 실제적 원인분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노인자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10] 선행 연구들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의 건강상태나 사회통합, 자기효능감 또는 우울 등을 다룬 [2][7][16][20][28]미시적 수준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사회위기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고[3][25][33], 그로 인한 생존문제와 가족갈등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을 유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거시적인 측면에 맞춘 노인자살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자살의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노인자살률과 경제·사회적 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노인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자살에 관한 거시적 관점

일반적으로 자살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크게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을 들 수 있다.

1. 사회학적 관점

자살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이다. Durkheim이 그의 이론에서 제시한 유형 중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은 노인자살의 전형적인 특성이다[8]. 김형수(2002)는 Durkheim의 이론적 시각(특히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 유형)으로 국내 노인자살에 적용하여, 노후에 발생하는 건강악화, 지위와 역할 그리고 권력과 수입 등의 상실은 노인 개인의 사회적 통합의 약화와 사회규제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이는 결국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구속성(사회규제력)이 낮은 사회에서 급격한 사회변동 및 경제위기시 사회적 존재로서의 방향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개인이, 새로운 변화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때 사회가 구속력을 행사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기적 자살은, 사회적 연대성(사회응집력)이 낮은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그로인해 사회관계에 대한 효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개인의 고립이 높아져 나타나는 경우이다[38]. 보수적 특성을 가진 우리 노년층은 급격한 경제성장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현대 생활상의 급변으로 인해 사회통합의 약화와 더불어 노인역할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사회규제력을 약화시켜 결국 이기적 상황과 아노미를 초래한다. 이혼은 아노미 유형의 자살로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자살이 이혼으로 인해 결혼의 규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일어남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 자살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혼자의 경우 가족의 통합정도가 약화되어 자살의 예방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인 우리사회에서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곧 자녀양육, 노인부양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노인의 경제력 상실과 정서적 지원약화는 노인자살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23]. 자살의 발생은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서도 특징적인 패턴이 존재한다[22]. 압축적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시급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국민들의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우리나라의 미래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및 노인인구 부양비 증가 등의 지속적인 인구학적 압력이 예상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많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동효(2008)는 고령화 지수가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와 상대적 비율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그중 하나인 노인부양비 증가는 생산인구와 노인인구사이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일탈행위인 노인자살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노인자살률을 Durkheim의 아노미와 이기적 자살유형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또 이기적 유형의 자살을 예방하려면 사회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Minoui와 Andres(2008)는 미국 주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공복지지출, 공공의료 지출이 자살률과 부적인 상관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박유진 외(2009)도 한국의 낮은 공공사회지출은 경제위기 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Durkheim이 제시한 아노미와 이기적 유형들이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한국노인자살은 그의 사회통합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경제학적 관점

Durkheim이 사회학적 관점으로, 경제적 침체를 사회적 통합의 약화로 인한 자살률의 증가로 보는 것은[12] 결국 한국노인자살을 설명함에 있어 경제학적 관점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살의 문제를 사회 혹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은 적지 않으나 경제학적인 조망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부족한 편이다.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등의 경제적 상황이나 소득불평등과 같은 분배문제와 자살과의 상관성을 다룬 경제학적 관점의 일부 연구들이 존재한다[29].

Chuang(1997)과 Andres(2005)는 자살이유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적 변수들보다 오히려 경제적 변수들(소득과 실업 등)이 자살률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2]. 김종섭(2008)은 경제학적 관점으로 계량분석 시 많이 사용되는 변수로 실업률, 소득분배, 노동시장 참여율 등을 들고 있으며 자살은 실업이 늘어나고 소득이 감소할수록 증가한다고 예상한다. 이신숙 외(2002)는 거시적 경제변인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그 사회의 거시경제 요인이 유발하는 부정적 요소로서 소득불평등, 실업률, 빈곤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살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영전(2006)은 우리나라의 자살이 단기적으로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고 경제성장률, 가계소득, 실업률 등이 자살률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순(2003)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성장률과 음의 관계를, 실업과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odhi 외(2005)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불평등이 자살의 주된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사회에서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층의 높은 자살률이 이와는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노인자살의 급증은 노인빈곤이라는 경제적 원인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9][11][15]. 여유진 외(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수준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노인계층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감의 증가와 경제적 문제는 노인자살률의 증가를 설명해주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31]. 한편 심삼완(2003)은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 사이의 사회적 양극화로 노인다수가 대단히 제약된 삶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김승용(2004)도 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줄어들 때 노인자살률이 증가한다고 하

여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인자살률이 영향관계임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자살은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며 사회 전영역에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다중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 및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사회학적 관점(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과 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한 복합적인 관점으로 한국 노인자살률의 변화추이와 그 관련성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및 분석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노인인구의 자살률 경향을 검토한 후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변화 시 노인자살률의 변화양상을 시계열적(1990년부터 2010년까지)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노인자살률의 변동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경제적 요인(경제성장률, 실업률, 노인경제활동참가율, 상대적 빈곤율)과 사회적 요인(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고령화비 증가율, 노인부양비)의 변동추이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한국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한다. 넷째,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노인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한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자살에 관한 거시적 관점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노인자살률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들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노인자살률이고, 독립변수는 경제적 요인의 범주인 경제성장률, 실업률,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상대적 빈곤율과 사회적 요인의 범주인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고령화비 증가율, 노인부양비를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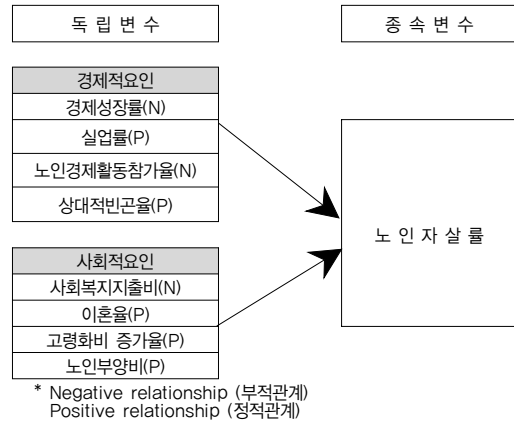


그림 1. 노인자살률 분석모형

3. 연구 자료와 분석 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자살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개의 종속변수와 8개의 독립변인의 자료(변수) 정의 및 출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출처

변수명	정의	출처
노인 자살률	(65세 이상 노인자살자수/65세 이상 전국노인인구) × 100,0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 성장률	해당연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 했는가를 백분위로 나타낸 것(%)	World Bank, World data bank
실업률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 100	World Bank, World data bank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상대적 빈곤율	전체가구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비율 (% ,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회복지 지출비	국내총생산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보건부문 지출 비교
이혼율	1년간 총 이혼건수/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 1,0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고령화비 증가율	해당연도의 고령화비율이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 했는가를 백분위로 나타낸 것(%)	World Bank, World data bank의 노인인구 비율을 통해 계산
노인 부양비	노인연령층(65세 이상)/생산인구 연령층(15~64세) × 100	World Bank, World data bank의 65세 이상 인구와 15~64세 인구를 통해 계산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기본적으로 SAS program 12.0을 활용하였다. 첫째, 노인자살률과 독립변인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 간 변화추이의 경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일통계자료에 기초한 그래프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노인자살률에 끼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후진제거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노인자살률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전체자살률과 비슷한 증가양상을 보이지만 2010년 기준, 인구 100,000명당 81.9명대 31명으로 약3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난을 겪었던 1998년, 노인자살률은 39.4명으로 1997년의 30.3명보다 급격히 증가하였고 1999년 이후로 잠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저성장과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그 후 2005년, 인구100,000명당 80.3명을 나타내며 사상 유래 없는 노인자살률의 증가를 기록한다. 2006년, 전 연령대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따라 노인자살률도 72명으로 감소하지만 2010년까지 81.9명으로 높은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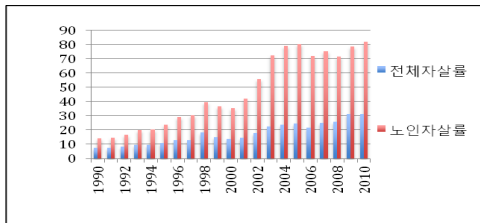


그림 2. 전체자살률과 노인자살률의 변화추이

2. 노인자살률과 거시적 요인의 변화 추이

2.1 경제적요인

2.1.1 경제성장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1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이에 비해 노인자살률은 전체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 경제성장률이 성장과 하락을 지속하는 시기에도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급격한 하락을 나타내는 시기에 노인자살률은 큰 증가율을 보였다. IMF 직후 1998년에 경제성장률은 -6.9%까지 하락률을 보일 때, 노인자살률은 39.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명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1998년도 이후 가장 낮은 0.2%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맞이한 2009년에 노인자살률은 78.8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경제불황기에 노인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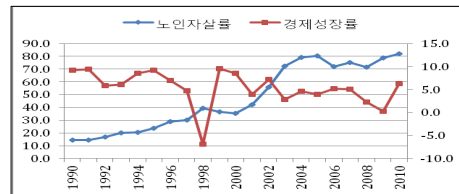


그림 3. 노인자살률과 경제성장률의 변화추이

2.1.2 실업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지난 21년 동안 실업률과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실업률이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노인자살률의 감소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2001년, 2002년에는 실업률이 각각 4.0%, 3.3%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은 각각 42명, 55.8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고용확대라는 것이 상용근로자를 최소화하고 임시·일용직을 증가시켜 근로자의 빈곤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9]. 이러한 근로빈곤은 노인층의 빈곤으로 이어져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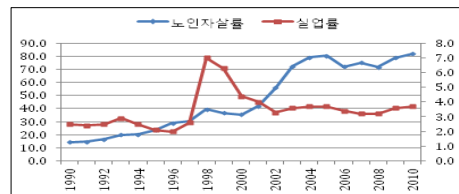


그림 4. 노인자살률과 실업률의 변화추이

2.1.3 노인경제활동참가율

노인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1년간 큰 변화 없이 대체적으로 소폭 증가하면서, 노인자살률과 증가와 감소를 같이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드시 일관되게 증감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노인층을 자의가 아니라 생계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또한 노인층의 하찮은 일자리(junk job)가 노인층의 생활문제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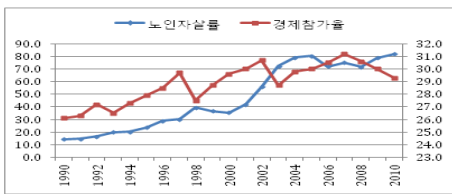


그림 5. 노인자살률과 노인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

2.1.4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21년간 지속적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노인자살률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자살률은 상대적 빈곤율과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빈곤이 심화될 때 노인자살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빈곤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생기는 상대적 빈곤이 일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26], 우리사회에서 노인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소득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으므로 이로 인해 노인자살이 유발하였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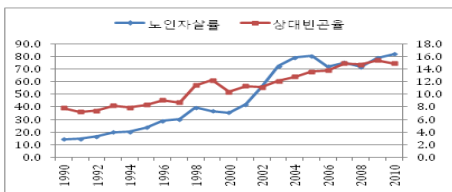


그림 6. 노인자살률과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추이

2.2 사회적요인

2.2.1 사회복지지출비

지난 21년간 사회복지지출비는 지속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 경향성 분석결과, 사회복지지출비가 높아진다고 노인자살률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것은 사회복지지출비가 어느 정도 확대 되었지만 사회복지제도의 구조 및 증가수준이 저소득층의 빈곤완화에 영향을 미칠 만큼 수혜규모가 크지 않아서[5], 노인층의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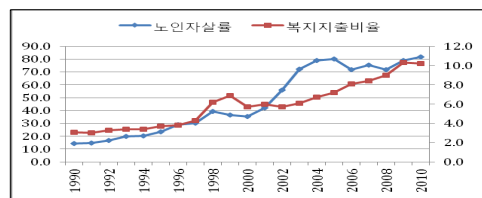


그림 7. 노인자살률과 사회복지지출비의 변화 추이

2.2.2 이혼율

단순 경향성 분석결과, 노인자살률은 이혼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해체로 인한 노인층의 소외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반하여서 노인자살률을 높이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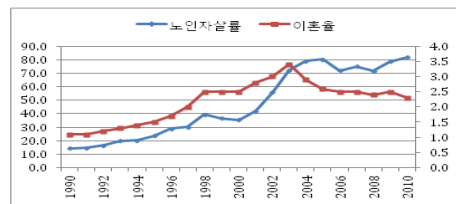


그림 8. 노인자살률과 이혼율의 변화추이

2.2.3 고령화비 증가율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2002년까지 고령화비 증가율과 증감을 같이 했으나 2002년 이후부터 고령화비 증가율과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

인자살률의 증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직접 영향이라기보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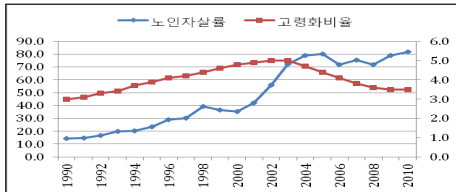


그림 9. 노인자살률과 고령화비 증가율의 변화추이

2.2.4 노인부양비

노인부양비는 지난 21년간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노인부양비와 노인자살률은 대체적으로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부양인구가 줄어들면서 노인자살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및 노인인구 부양비 증가 등의 지속적인 인구학적 압력이 예상되고 있어 노인자살률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서 획기적인 노인가족 부양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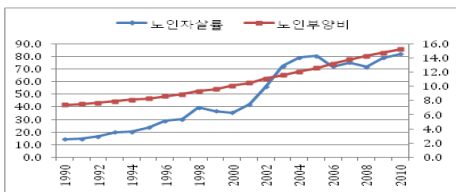


그림 10. 노인자살률과 노인 부양비의 변화 추이

3. 노인자살률에 대한 거시적 요인의 영향

앞서 살펴본 노인자살률과 거시적 요인들 간의 단순경향성(상관관계) 분석결과는 경우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 변수와 노인자살률은 동시에 관련 있는 다른 변수들의 존재로 인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1].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경제적 요인들 중에서 노인경제활동참가율은 노인자살률에 부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었으며,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노인계층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21] 상대적 빈곤율은 노인자살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고용이나 재취업 등의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적 요인들 중 사회통합 촉진요인으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지출비가 부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낮은 공공사회지출이 경제위기 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자살률이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한 박유진 외(2009)의 연구와 일치한다. 사회통합 억제요인으로 볼 수 있는 고령화비 증가율과 노인부양비는 공히 노인자살률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고령화 효과가 검증되고 있지만[12], 노인자살은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의해 발생된 문제이므로 고령화비 자체 보다는 고령화비 증가율이 노인자살률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그 중 하나인 노인부양비 증가는 한동효(2008)의 연구처럼 생산인구와 노인인구사이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일탈행위인 노인자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경제적 요인), 이혼율(사회적 요인)은 노인자살률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경우, 단지 이들의 높고 낮음이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경기침체로 급격히 경제수준이 낮아지거나 실업률이 높아진 시기에 노인자살률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혼율의 경우, 노인자살률과 관련된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동시에 검토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혹은 가족구성원의 이혼이 과거에 비해 노인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약화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로 분석한 결과 노인부양비(1.37), 사회복지지출비(-0.94), 상대적 빈곤율(0.69), 노인경제활동참가율(-0.27), 고령화비 증가율(0.2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가 노인자살률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표 2.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후진제거법)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오류			
사회복지지출비	-10.280	2.358	-0.939	-4.36	0.0006
고령화비 증가율	8.094	2.417	0.200	3.35	0.0044
노인부양비	13.582	1.928	1.369	7.05	0.0001
상대적 빈곤율	6.367	2.195	0.695	2.90	0.0110
노인경제활동 참가율	-4.428	1.458	-0.270	-3.04	0.0083

V.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인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경제활동참가율의 정책적 개입은 노인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처럼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노인이 근로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년연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점진적 퇴직제도와 젊은 층과의 업무공유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격차는 소외된 계층, 특히 노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소득수준 저하는 기대소득 감소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상실감으로 노인자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 빈곤감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고

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여기에 기업들의 투자를 통한 이익이 증진됨으로써 중산층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은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지출수준의 제고와 노인복지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이 노인자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사회복지지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비용(특히 노인복지비)의 지출 수준을 보다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수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범위를 재검토하고 급여액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령화비 증가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및 결혼의 증대정책이 필요한데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비, 결혼비용 등 각종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관습의 정착이 요구된다. 또한 월 소득의 많은 부분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교육현실에서 사교육비를 경감 시켜주는 대책은 결혼율과 출산율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인부양인구의 축소는 노인자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의 세대는 노인부양비가 커져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함으로 이들의 생산력은 크게 증대되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부모를 포함해 다른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층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 취업교육과 함께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줄여주는 지원책으로 부양수당 및 세제 혜택이나 용자 등의 공적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를 사용해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연도별 시기자료가 충분치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노인자살률을 사회·경제적 요인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기에 향후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하는 질적인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강은정, 이수형, “자살의 원인과 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2] 김미령,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사회적·심리적 영향”, 한국노인복지학, 노인복지연구, 제47권, pp.113-136, 2010.
- [3] 김승용, “한국 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9권, pp.181-205, 2004.
- [4] 김종섭, “경제위기와 자살 : 한국과 중남미 3개국의 비교”, 라틴아메리카연구, 제23권, 제3호, 2008.
- [5] 김진욱, “한국소득이전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권, pp.171-195, 2004.
- [6] 김충선, *자살론(Emile Durkheim) : 사회학적인 연구*, 청아출판사, 1994.
- [7] 김현순, 김병석,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심리학 :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3호, pp.801-818, 2007.
- [8] 김형수, “노인자살의 이해와 일차적 예방”, 한국인구학, 제23권, 제2호, pp.167-187, 2000.
- [9] 김형수,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1호, pp.159-172, 2002.
- [10] 김형수, 허평화, “노인자살 예방전략에 관한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 pp.309-317, 2011.
- [11] 김효창, 손영미, “노인 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 제12권, 제2호, pp.1-19, 2006.
- [12] 노용환, “자살의 경제학적 분석: 우리나라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접근”, 한국경제학회, 경제학 연구, 제54권, 제3호, pp.177-200, 2006.
- [13] 박유진, 김명희, 권순만, 신영진, “공공사회복지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예방의학회지, 제42권, 제2호, pp.123-129, 2009.
- [14] 박종순,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의 추세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 제25권, 제2호, pp.83-91, 2003.
- [15] 박지원, 반금옥, “Circumplex Model에 근거하는 취약가구 노인의 가족기능과 성공적 노화”, 성인간호학, 제22권, 제3호, pp.239-249, 2010.
- [16] 배지연, “노인의 자살-생태체계적관점의 고찰”, 사회과학논문집, 제22권, 제2호, pp.235-252, 2004.
- [17] 신영진, *국내자살 증가의 원인분석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회, 경제학적 연구 : 다학제적 접근 및 국제비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제65권, 2006.
- [18] 심상완,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과학기술”, 과학기술학연구, 제2권, 제2호, pp.145-189, 2003.
- [19] 심상용, “과거 성장전략의 경로의존성과 혁신주도 동반성장의 과제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 제14권, 제3호, pp.223-248, 2005.
- [20] 엄태완, “노인자살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2호, pp.355-379, 2007.
- [21] 여유진, 김태완,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1호, 2005.
- [22] 오진경, 조영태, 김창엽, “2000년 우리나라 성인 자살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제18권, pp.191-210, 2005.
- [23] 유정균, “노인자살률의 지역별 편차-가족불안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1995-2005”, 한국인구학, 제31권, 제2호, pp.21-44, 2008.
- [24] 이성용, “중고령자의 실직 재취업에 대한 동태분석”, 한국사회학, 사회학대회 논문집, pp.645-660, 2007.
- [25] 이소정,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pp.1-19, 2010.
- [26] 이승주, *경찰학 개론*, 서울:고시뱅크, 2010.
- [27] 이신숙, 이경주,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 2002.
- [28] 이현지, 조계화, “노인자살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 유형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34권, pp.293-311,

2006.

- [29] 장지연, 신동균, “소득 양극화와 자살”, 사회보장 연구, 제26권, 제2호, pp.1-21, 2010.
- [30] 통계청, 고령자통계, 2009.
- [31] 한국자살예방협회,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보고서, 2008.
- [32] 한동효,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 요인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pp.87-109, 2008.
- [33] 홍성철, 김문두, 이상이, “사회계층이 자살 사망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14권, pp.249-271, 2003.
- [34] A. Andres, “Income inequality, nemployment, and suicide: A panel data analysis of 15 European countries,” Appl Econ, Vol.37, No.4, pp.439-451, 2005.
- [35] C. Minoui and A. Andres, “The effect of public spending on suicide: Evidence from U.S. state data,” J. Socio Econ, Vol.37, No.1, pp.237-261, 2008.
- [36] H. Chuang, W. Huang, and Wei-Chiao, “Economics and Social Correlates of Regional suicide Rates,” J. of Socio-Economics, Vol.26, 1997.
- [37] L Lodhi and A. Shah, “Factors associated with the recent decline in suicide rates in the elderly in England and Wales. 1985-1998,”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Vol.45, pp.115-120, 2005.
- [38] W. Pickering and F. Walford, *Durkheim’s Suicide: a century of research and debate*, Routledge, 2000.

김 형 수(Hyoung-Soo Kim)

정회원



- 1995년 :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박사(노인문제 및 복지정책)
- 199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노인정신보건

권 이 경(Lee-Kyung Kwon)

정회원



- 2012년 2월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3년 3월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재개발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노인정신보건